

익수사고 10명 중 3명 사망, 물놀이 안전 수칙 준수 당부

- 최근 5년 주요 23개 병원 응급실 내원 익수사고 환자 505명 중 154명 사망(30.5%)
- 어린이 익수사고 51.1%는 여름철 발생
- 질병관리청, 「아이와 함께하는 물놀이 안전수칙」 리플릿 배포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7월 25일 「세계 익사 예방의 날*(World Drowning Prevention Day)」을 맞아 최근 5년간(2021~2025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물놀이 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UN 총회가 익수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국제기념일로 "익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누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Anyone can drown. No one should.)"를 주제로 전 세계적인 예방 캠페인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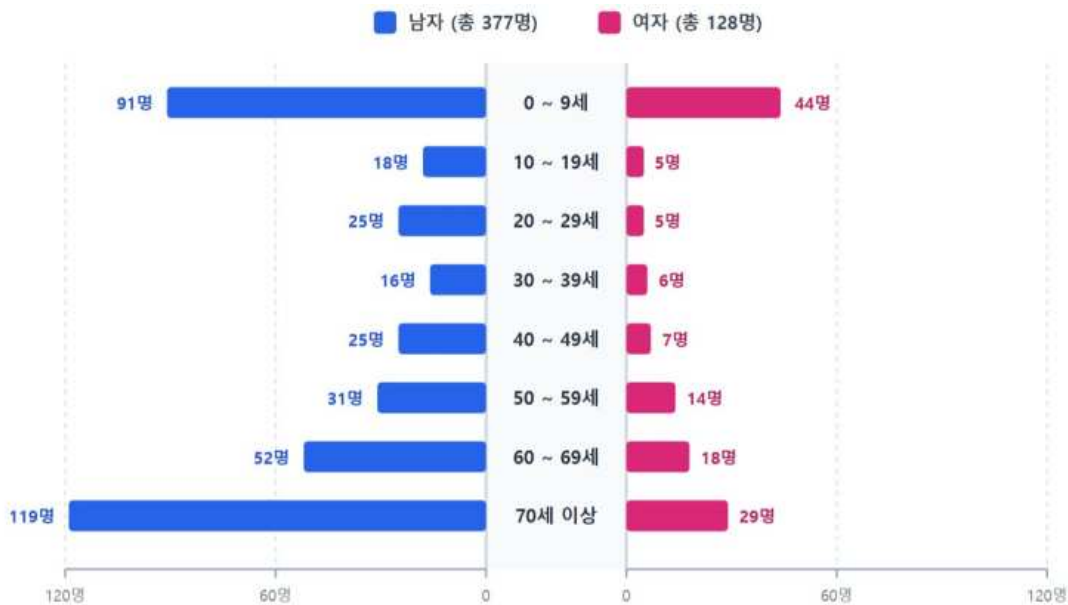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23개 병원('15년~'26년 현재)에서 응급실 내원 손상환자 대상으로 손상 발생 원인 및 유형 등을 조사(붙임3 참조)

분석 결과, 비의도적 익수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505명 가운데 154명이 사망(30.5%)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10명 중 3명이 사망할 만큼, 익수사고는 발생 시 사망 위험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1. 익수사고 발생 현황

익수사고 환자 중 남성이 377명(74.7%)으로 여성(25.3%)보다 약 3배 많았다(그림1).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148명(29.3%)으로 가장 많았으며, 0~9세 어린이가 135명(26.7%), 60~69세가 70명(13.9%) 순으로 어린이와 고령층을 중심으로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2).

특히 70세 이상은 전체 익수사고의 29.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발생 비중을 보였으며, 사망분율도 51.4%로 가장 높았다.



[그림 1] 최근 5년(2021~2025) 성별 익수사고 발생 현황



[그림 2] 최근 5년(2021~2025) 익수사고 발생 및 사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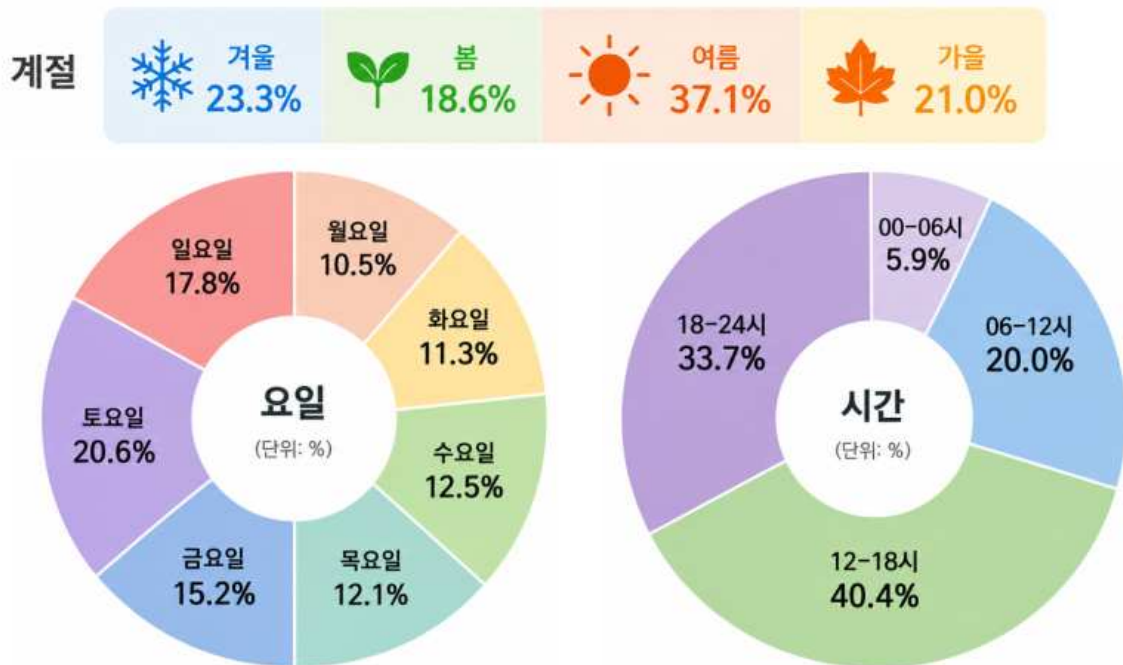
2. 여름철·주말·오후에 익수사고 집중

익수사고는 여름철·주말·오후에 많이 발생하였다(그림3).

계절별로는 여름철이 37.1%로 가장 많았다. 월별로는 8월이 14.5%로 가장 많았으며, 6월 11.7%, 7월 10.9% 순이었다.

요일별로는 토요일이 20.6%로 가장 많았고, 일요일 17.8%, 금요일 15.2% 순으로 나타났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익수사고는 전체의 53.6%로, 절반 이상이 주말을 전후해 발생하였다.

시간대별로는 12시부터 18시 사이가 40.4%로 가장 많았으며, 18시부터 24시 사이도 33.7%를 차지하여 저녁 시간대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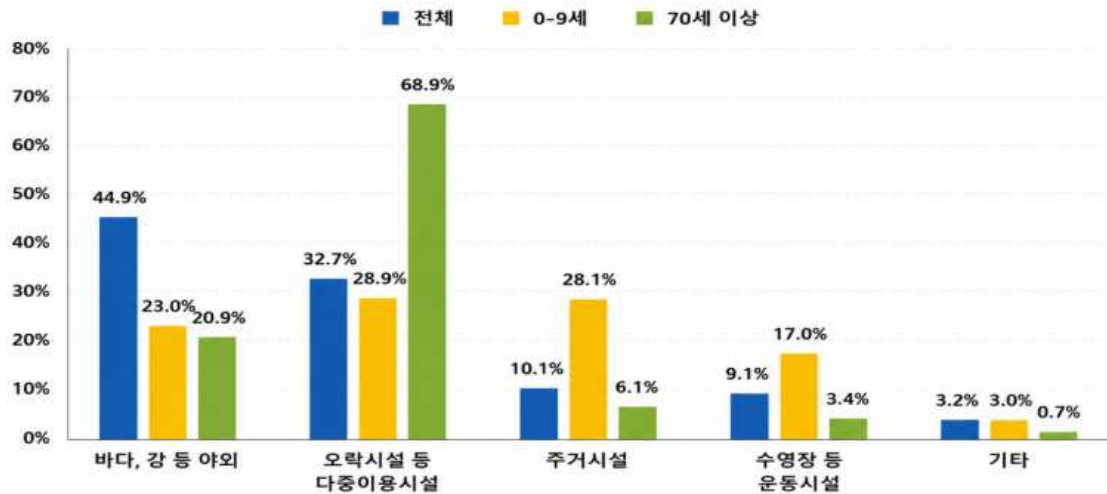
[그림 3] 최근 5년(2021~2025) 익수사고 발생 시기

3. 여가활동 중 바다·강 등 야외에서 가장 많이 발생

익수사고의 46.5%는 여가활동 중 발생했으며, 일상생활 중 발생도 33.3%를 차지하였다.

발생 장소는 바다·강 등 야외가 44.9%로 가장 많았고, 목욕탕·워터파크 등 오락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이 32.7%, 주거시설이 10.1%, 수영장 등 운동 시설이 9.1% 순이었다(그림4).

바다·강뿐 아니라 워터파크, 목욕탕 등 물놀이 시설에서도 익수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장소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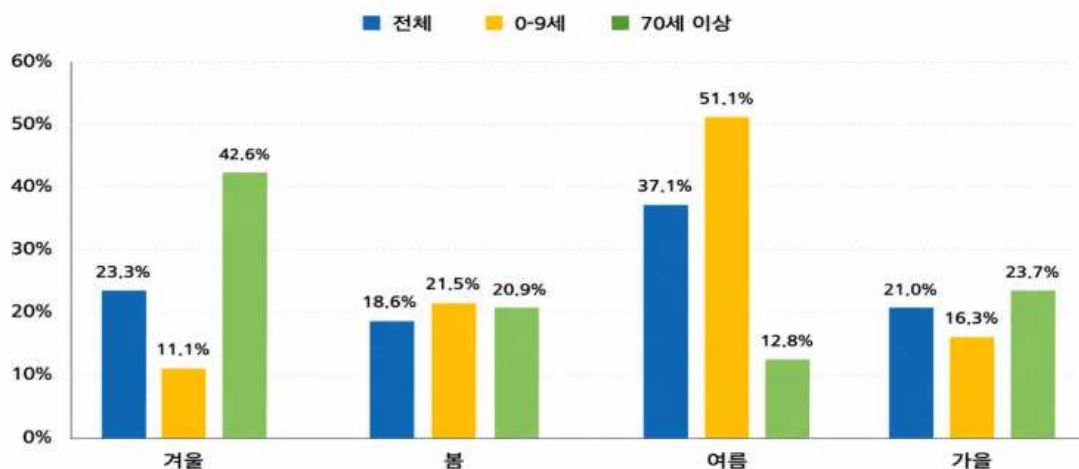
[그림 4] 어린이와 노인의 익수사고 발생 장소

4. 연령에 따른 익수사고 특성

연령에 따라 익수사고 발생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0~9세 어린이는 여름철 발생이 절반 이상(51.1%)으로 가장 많아 방학과 휴가철 물놀이 시기에 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다중이용시설(28.9%)과 주거시설(28.1%), 바다·강 등 야외(23.0%)에서 골고루 발생하였다. 반면 70세 이상은 겨울철(42.6%) 발생이 가장 많았으며, 발생 장소도 다중이용시설(68.9%)에서 가장 높은 분율을 차지하였다(그림4,5).

이는 연령에 따라 익수사고가 발생하는 환경이 다른 만큼,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림 5] 어린이와 노인의 계절별 익수사고 발생 현황

5. 세계 익사 예방의 날 맞아 안전수칙 실천 당부

질병관리청은 익수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안전수칙과 사고 발생 시 대처법을 담은 리플릿을 마련하였다.



물놀이 전 꼭 확인하세요


기상정보 확인
 호우, 폭랑, 강풍 등 기상특보가 있는 날은 물놀이를 피하세요


안전한 장소 선택
 안전요원이 있는 곳, 출입이 허용된 곳에서 놀아요


구명조끼 준비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요


준비물 챙기기
 물, 모자, 자외선 차단제, 여벌옷 등을 챙겨요



**준비가
안전을
만들어요**

물놀이 중 지켜주세요!


구명조끼 착용
 튜브나 팔튜브는 구명조끼가 아니에요


눈을 떼지 않기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마세요, 팔 닿는 거리에서 함께해요


다이빙·뛰어들기 금지
 수심을 확인하고 갑자기 뛰어들지 마세요


음주 후 입수 금지
 술을 마셨다면 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위험한 곳 피하기
 물이 너무 깊거나 수심의 변화가 심한 곳은 위험해요


혼자 놀지 않기
 어른이 보이는 곳에서 놀아해요



**수영을 잘해도
방심은 금물!**
수영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보호자 감독과 안전장비 착용입니다.

어린이는 매우 짧은 순간에 사고가 발생하므로 보호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무리한 단체활동은 지양하고, 여러 명이 물놀이를 할 경우에는 충분한 수의 관리자 또는 보호자가 동행하여 빈틈없이 관리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익수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고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손상인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특히 발생과 사망 위험이 모두 높은 고령층과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물놀이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질병관리청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손상예방 정책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물놀이 안전수칙 리플릿은 국가손상정보포털 및 질병관리청 누리집, 카카오톡 채널(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 국가손상정보포털 누리집(<https://www.kdca.go.kr/injury>) > 자료실 > 수칙 및 지침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카드뉴스 및 교육자료

- <붙임> 1.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2. 익수사고 발생 및 사망 통계 (2021~2025)
3.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개요

담당 부서	건강위해대응관 손상에 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안윤진 (043-219-2910)
		담당자	연구관	이정은 (043-719-7411)
			주무관	김소연 (043-219-2942)



알아두면 좋아요

- 충분한 수분섭취**
 - 갈증을 느끼기 전에 자주 물을 마셔요
- 자외선 차단**
 - 모자, 선크림, 긴 옷으로 피부를 보호해요
- 체온보호**
 - 너무 오래 물에 있으면 체온이 떨어질 수 있어요
- 미끄럼 주의**
 - 바닥이 미끄러우니 천천히 걸어요
- 눈에 잘 띄는 수영복 착용**
 - 주황색 등 밝은색이 잘보여요
파란색 계열은 물속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안전하게 물놀이해요**

즐거운 물놀이는 안전에서 시작됩니다

안전수칙을 실천하여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세요!

더 많은
안전정보를 확인하세요

어린이체험활동
손상예방 가이드라인

심폐소생술
교육영상

질병관리청

아이와 함께하는 물놀이 안전수칙

질병관리청

물놀이 전 꼭 확인하세요

- 기상정보 확인**
 - 호우, 폭랑, 강풍 등 기상특보가 있는 날은 물놀이를 피하세요
- 안전한 장소 선택**
 - 안전요원이 있는 곳, 출입이 허용된 곳에서 놀아요
- 구명조끼 준비**
 -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요
- 준비물 챙기기**
 - 물, 모자, 자외선 차단제, 어벌웃 등을 챙겨요

**준비가
안전
만들어요**

물놀이 중 지켜주세요!

- 구명조끼 착용**
 - 튜브나 팔튜브는 구명조끼가 아니에요
- 눈을 떼지 않기**
 -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마세요, 팔 닿는 거리에서 함께해요
- 다이빙·뛰어들기 금지**
 - 수심을 확인하고 갑자기 뛰어들지 마세요
- 음주 후 입수 금지**
 - 술을 마셨다면 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 위험한 곳 피하기**
 - 물이 너무 깊거나 수심의 변화가 심한 곳은 위험해요
- 혼자 놀지 않기**
 - 어른이 보이는 곳에서 놀아해요

**수영을 잘해도
방심은 금물!**

수영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보호자 감독과 안전장비 착용입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 119 신고**
 - 즉시 119에 신고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요
- 직접 뛰어들지 않기**
 - 함께 빠질 위험이 있어요
- 도구를 이용해 구조**
 - 구명환, 구명로프, 긴 막대 등 주변도구를 이용해요
- 의식과 호흡 확인**
 - 의식과 호흡이 없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요
- 심폐소생술 실시**
 - 119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계속해요

**구조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리한 구조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붙임 2

익수사고 발생 및 사망 통계 (2021~2025)

□ 성별, 연령대별 익수사고 발생 및 사망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	505 (100.0)	135 (26.7)	23 (4.6)	30 (5.9)	22 (4.4)	32 (6.3)	45 (8.9)	70 (13.9)	148 (29.3)
남자	377 (74.7)	91 (67.4)	18 (78.3)	25 (83.3)	16 (72.7)	25 (78.1)	31 (68.9)	52 (74.3)	119 (80.4)
여자	128 (25.3)	44 (32.6)	5 (21.7)	5 (16.7)	6 (27.2)	7 (21.9)	14 (31.1)	18 (25.7)	29 (19.6)
사망	154 (30.5)	11 (8.1)	3 (13.0)	9 (30.0)	7 (31.8)	9 (28.1)	15 (33.3)	24 (34.3)	76 (51.4)

* 자료원: 2021~2025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 사망분율: 각 연령대별 익수사고 발생 환자 중 사망한 환자의 분율

□ 2021-2025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익수사고 조사 결과

○ 계절별

(단위: 명, %)

구분	계	겨울				봄				여름				가을				미상
		소계	12월	1월	2월	소계	3월	4월	5월	소계	6월	7월	8월	소계	9월	10월	11월	
발생 (분율)	505 (100.0)	118 (23.3)	46 (9.1)	42 (8.3)	30 (5.9)	94 (18.6)	29 (5.7)	27 (5.4)	38 (7.5)	187 (37.1)	59 (11.7)	55 (10.9)	73 (14.5)	106 (21.0)	38 (7.5)	30 (6.0)	38 (7.5)	0 (0.0)

○ 요일별

(단위: 명, %)

구분	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미상
발생 (분율)	505 (100.0)	53 (10.5)	57 (11.3)	63 (12.5)	61 (12.1)	77 (15.2)	104 (20.6)	90 (17.8)	0 (0.0)

○ 시간대별

(단위: 명, %)

구분	계	00-06시	06-12시	12-18시	18-24시	미상
발생 (분율)	505 (100.0)	30 (5.9)	101 (20.0)	204 (40.4)	170 (33.7)	0 (0.0)

○ 활동별

(단위: 명, %)

구분	계	여가활동	일상생활	업무	운동	기타	미상
발생 (분율)	505 (100.0)	235 (46.5)	168 (33.3)	48 (9.5)	28 (5.5)	21 (4.2)	5 (1.0)

○ 장소별

(단위: 명, %)

구분	계	바다, 강 등 야외	오락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주거시설	수영장 등 운동시설	기타	미상
발생 (분율)	506 (100.0)	227 (44.9)	165 (32.7)	51 (10.1)	46 (9.1)	16 (3.2)	0 (0.0)

※ [참고] 연도별 손상기전에 따른 손상 발생률 및 사망률(2021-2025)

(단위: 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내원	사망	내원	사망	내원	사망	내원	사망	내원	사망
전체 손상	190,496 (100.0)	2,561 (1.3)	193,384 (100.0)	2,613 (1.4)	203,285 (100.0)	2,425 (1.2)	86,633 (100.0)	2,229 (2.6)	83,844 (100.0)	2,127 (2.5)
운수사고	26,531 (13.9)	743 (2.8)	26,173 (13.5)	737 (2.8)	26,689 (13.1)	728 (2.7)	13,087 (15.1)	694 (5.3)	13,258 (15.8)	654 (4.9)
추락·낙상	66,009 (34.7)	1,077 (1.6)	71,185 (36.8)	1,188 (1.7)	76,875 (39.8)	1,074 (1.4)	34,614 (40.0)	960 (2.8)	33,513 (40.0)	897 (2.7)
둔상	36,161 (19.0)	102 (0.3)	37,637 (19.5)	118 (0.3)	39,356 (20.4)	76 (0.2)	13,165 (15.2)	79 (0.6)	12,054 (14.4)	61 (0.5)
관통상	22,903 (12.0)	46 (0.2)	21,269 (11.0)	58 (0.3)	21,622 (11.2)	40 (0.2)	7,703 (8.9)	45 (0.6)	6,914 (8.2)	57 (0.8)
기계	1,952 (1.0)	9 (0.5)	1,749 (0.9)	12 (0.7)	1,648 (0.9)	15 (0.9)	537 (0.6)	6 (1.1)	552 (0.7)	7 (1.3)
화상	2,841 (1.5)	11 (0.4)	2,856 (1.5)	12 (0.4)	2,997 (1.5)	13 (0.4)	1,315 (1.5)	10 (0.8)	1,281 (1.5)	30 (2.3)
익수	216 (0.1)	57 (26.4)	199 (0.1)	51 (25.6)	186 (0.1)	42 (22.6)	158 (0.2)	55 (34.8)	143 (0.2)	37 (25.9)
질식	833 (0.4)	282 (33.9)	682 (0.4)	234 (34.3)	716 (0.4)	249 (34.8)	499 (0.6)	194 (38.9)	512 (0.6)	202 (39.5)
중독	8,117 (4.3)	166 (2.0)	7,944 (4.1)	149 (1.9)	8,518 (4.4)	141 (1.7)	5,974 (6.9)	141 (2.4)	5,856 (7.0)	129 (2.2)
신체 과다사용	7,384 (3.9)	10 (0.1)	7,795 (4.0)	7 (0.1)	8,630 (4.5)	8 (0.1)	3,220 (3.7)	5 (0.2)	3,505 (4.2)	7 (0.2)
기타·미상	17,549 (9.2)	58 (0.3)	15,895 (8.2)	47 (0.3)	16,048 (8.3)	39 (0.2)	6,361 (7.3)	40 (0.6)	6,256 (7.4)	46 (0.7)

* 자료원: 2021-2025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 내원분율: 해당 손상기전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의 분율

* 사망분율: 각 손상기전별 응급실 내원 손상환자 중 사망한 환자의 분율

* 의도성 및 비의도성 익수사고 포함한 내원자 수

□ **추진목적**

- 응급실 기반의 손상자료를 이용한 손상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평가

□ **운영방법 및 참여기관**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도입, 5개 참여병원* 대상으로 조사 실시('06년)

* '08년 8개 병원, '10년 20개 병원, '15년 23개 병원으로 확대

- 다양한 손상 발생 현황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다기관이 참여하여 연중 상시로 손상내원환자 전수를 조사하는 체계로 운영

- 심층분석이 필요한 시급한 손상 과제를 고려하여 4개 심층분과*로 나누고 23개 참여병원이 분담하여 심층조사 실시

* ①운수사고, ②자살·중독·추락·낙상, ③머리·척추 손상, ④ 소아·청소년 손상

- 2026년 참여병원(분과별)

- (운수사고) 경북대학교병원, 가천길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 (자살·중독·추락·낙상) 강동성심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조선대학교병원
- (머리·척추 손상)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제주대학교병원
- (소아·청소년 손상)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 **조사내용 및 방법**

- (조사내용) 공통문항 60개, 심층문항 58개

- (공통문항) 의도성, 손상원인, 손상유발물질, 손상부위, 최종결과 등
- (심층문항) 손상발생 시 상세사항, 중증도, 안전장치 활용 등

- (조사방법) 의무기록자료 이용 및 면접